



劇團 아센

창 · 단 · 공 · 연

* 창단공연기념 EVENT: 하나, ^천한날 공연 50%할인/둘, ^천금요일 오후 4:30 공연 ^천커플입장시 50%할인

원작: 정하연
각색: 호민
연출: 호민
음악: 박철홍
기획: 김재경



출연: 구민주
박준호
황정옥
원성민 外 2인

일시: 2000년 9월 22일(금)~10월3일(화)

월~목 □ PM.7:30/금,토 □ PM.4:30,7:30/일,공휴일 □ PM.4:30

장소: **놀이원소극장**

후원: 한국아쿠아리아21(주), 동인병원, 부산디자이너클럽, 다우실업

예매처: 문우당서점(남포동), 영광도서, 동보서적, 청학서점(동아대 앞), 롯데리아(엄궁점)
지구레코드(범일동), 문학서점(동아대), 면학서점(경성대), 학원서점(부산대),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극단 '아센' 기획사무실 T.(051)469-6484/놀이원소극장 T.(051)631-0660

<http://cafe.daum.net/acen2000/> < 여기에 '클릭' 하세요

인 사 말



연출가, 부산연극협회장
이 성 규

극단 “아센”이 창단 된다.

“아센”은 Art Center의 한글약자라고 한다.

굳이 극단명을 “아센”이라 이름한 것은 연극의 종합적 완성도를 이루기 위한 예술 각 분야의 전문인의 집합체를 지향하고, (당연한 것이 되겠지만...) 향후 Art Center를 건립하고자 하는 극단의 굳은 의지로 읽을 수 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실천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갈증이 극단 “아센”의 창단배경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새로운 극단의 창단은 전통적인 연극문화관의 기류를 깨는 신선한 도전과 모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창단목표는 없고, 예술적 신념 또한 허약한 듯한 극단의 부침을 보아왔다. 극단 “아센”은 이러한 회의적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창단공연은 연습공연이 결코 아니어야 한다. 창단공연을 통해 극단의 예술적 태도와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인구 400만의 도시 부산에서 20여개의 극단은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많은 극단들이 자꾸 창단되어 연극문화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야 한다. 아직도 연극은 시민들의 의식속에 재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연극인의 양성과 다양한 공연양식을 관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관객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신생극단이 기존의 연극계 인사가 아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대만큼 좋은 작품을 선보이지 못하거나, 금방 해산됨으로써 기존의 연극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창단의 주역 “호민”군은 여러해 동안 이러한 생각을 가다듬어 왔을 것이다. 내가 아는 그는 예사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성실하고 집요하다. 생각이 깊고 인간미가 있다. 부설 연기학원을 개설하고 연습과 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을 생각한 것만 봐도 치밀하게 Vision을 펼쳐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든다.

부산 연극판에 또하나 가능성이 있는 극단이 탄생한 셈이다.

“호민”과 뜻을 같이한 “아센”의 단원들이 끈끈하게 뭉쳐 새로운 회오리를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성공을 빈다.

대표, 연출의 변



극단 '아센' 대표, 연출
호 민

-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

200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연극을 전업으로 삼고 있거나, 앞으로 직업으로 가질 몇사람이 만난 모종의 담합(?) 의 자리였다고나 할까?

그러나 결코 은밀하거나, 엄숙하지는 않았다. 그저 이제까지 해 온 '도둑질', 앞으로 제대로 잘해야 할 것을, 늘 이야기해왔고, 잘 알고 있었지만 못해왔던 일에 대한 진솔한 대답의 자리였다. 그리고 내린 결론, 알고 있지만 못해 왔던 것에 대한 실천

의 집합체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극단 '아센'은 조용히 창단되었다. 우리의 의지는 그 날의 자리에서 다짐했던 반성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것 뿐이다.

Art Center의 한글 발음 약자 '아센'

극 예술의 종합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분야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룰 때, 양질의 극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

잘 알지만 실천 못해왔던 그 논리에 대한 우리의 나태함을 반성의 골간으로 우리는 작은 집합체를 탄생시켰다. 그것이 지난 2월 24일. 크게 떠들어야 할,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기에 몇몇분만 모시고 조촐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첫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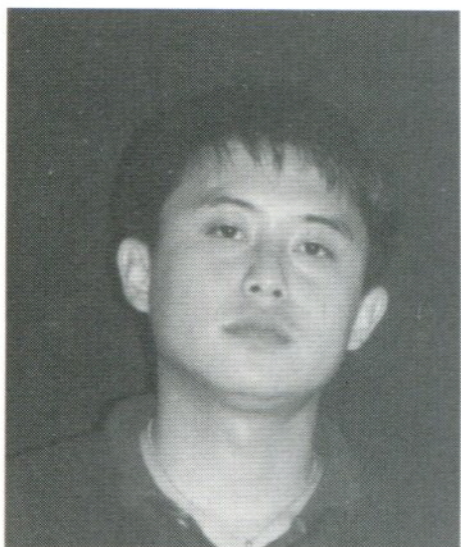
우리의 의지는 솔직한 반성에 대한 실천이요, 우리의 바램은 연극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의식과 정신을 공유하자는 것이요, 또한 연극을 예술 혹은 창조라는 추상명사속에 가두어 두고, 공허하게 떠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다. 창단작업을 준비한 지 3개월여, 지금 엄숙하게 우리는 또 한번 반성해 본다. 우리가 흘린 땀만큼 우리의 실천적 의지는 제대로 적용되 왔던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고, 생각만큼 실천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단발로 끝나지 않을, 지속해가야 할 앞날이 남았기에 의지와 바램을 버리지 않고, 강인한 웃음으로 '아센'은 매진할 것이다.

그 동안 고생하신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창단원으로서의 긍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품해설 및 줄거리



극단 '아센' 기획실장
김재경

극단 '아센'의 창단공연 <敵(적)과의 이중주>는 현재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하연님의 원작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3년전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결혼하게된 하상혁(박준호 扮)과 민여옥(구민주 扮)은 그러나, 1여년 전을 기점으로 여옥의 외출과 가출이 잦아지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상혁은 여옥에 대한 불안과 불신, 질투로 괴로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여옥 되기를

원한다. 여옥은 여옥대로 남편에게 조차 말 못할 고통스러운 과거의 비밀이 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한 남자에게 육체를 유린 당해온 상태다.

여옥이 외출에서 돌아온 어느날 두사람은 큰 다툼을 갖게 되고, 상혁이 집을 뛰쳐나간 사이 남자의 방문을 받게된 여옥은 실수로 남자를 죽이게 된다. 뒤이어 술에 취해 한 여자와 돌아온 상혁은 우연히 남자의 죽음을 알게 되지만, 오히려 모른척 여옥을 감싸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여옥의 과거를 어렵 뜻이 알게된 상혁은 자신의 사랑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여옥이 잠든사이 남자의 시체를 치우게 되는데...

일련의 심리극 형태를 갖춘 이번 작품은 '사랑'에 대한 각자의 해석법을 다루고 있다. "소유욕과 존재욕"이라는 주제로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이중적 심리성을 극명하게 파헤칠 본 작품은 배우들의 독특한 성격창조에 의한 개성적 연기로 연극 관람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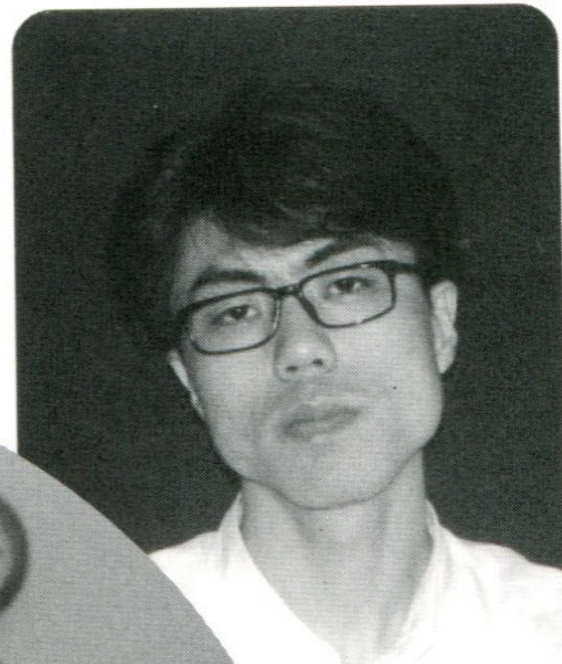
창단공연에 대한 적지않은 부담감과 무언가 독특함이 있어야 한다(?)는 중압감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작품을 택한 이유는 관객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 보편성을 띤 작품으로, 연극을 친숙하게 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관객이 보기에 쉬운 연극이, 만들기에 쉽다는 논리와 통하지는 않으므로 '아센'의 단원들은 최선의 땀을 흘렸다. 부디 보시고, 아낌없는 질타와 충고 바라며 늘 창단의 마음으로 매진할 '아센'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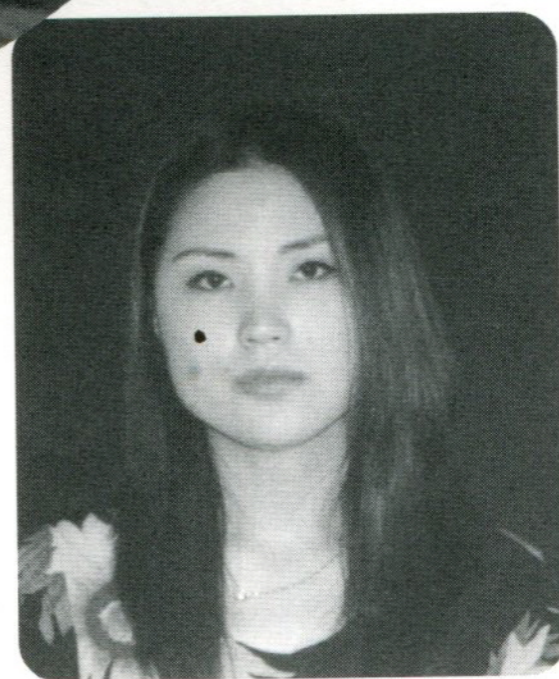
민 여 옥 (구민주)



하 상 혁 (박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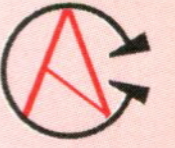
관 리 인 (원성민)



여 자 (황정욱)

STAFF

劇團 아스카



연출/ 호민



음악/ 박철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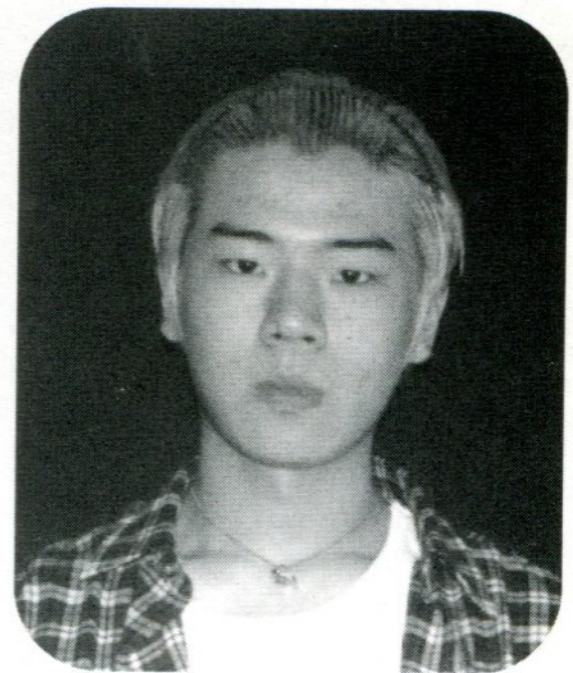
기획/ 김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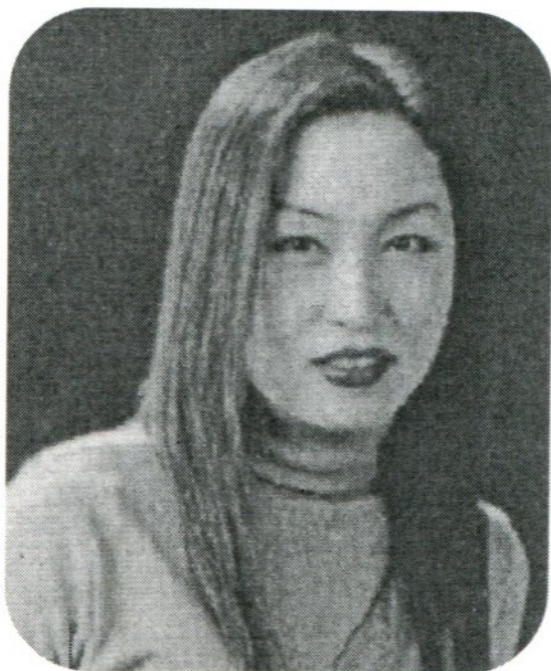
무대감독/ 호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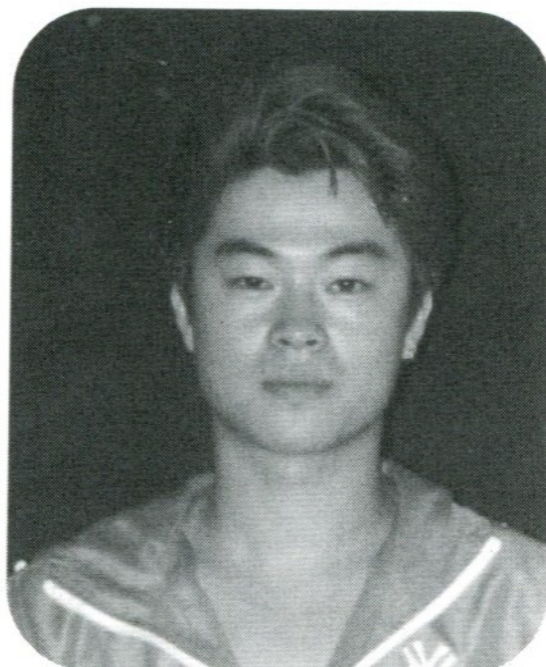
음향/ 윤소영



조명/ 임영고



소품·의상/ 최수희



스틸/ 서정욱



조연출/ 송영주

진행/ 구보경·권수미